

T V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6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Contains TV program schedules for September 7th.

TV 8일

Table with 6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Contains TV program schedules for September 8th.

TV 9일

Table with 6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Contains TV program schedules for September 9th.

삼국통일을 꿈꾸는 신라 영웅들의 이야기

KBS '대왕의 꿈' 8일 첫 방영

“근초고왕”, “공개토태왕” 등 굵직한 대사극을 선보여 온 KBS 1TV가 5개월 만에 신라 통일기를 다룬 새 작품을 마련했다. 그 가운데에는 ‘태조 왕건’, ‘대조영’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수종이라는 ‘사극 흥행 불패 카드’가 우뚝 서 있다. 오는 8일 첫 방송 되는 80부작 주말 대사극 ‘대왕의 꿈’이다. 드라마는 태조무열왕 김춘추(최수종 분)를 중심으로 김유신(김유석), 섣덕여왕(박주미), 승만왕후(이영아) 등 7세기 신라 영웅들의 활약을 그린다. ‘천추태후’, ‘무인시대’ 등을 연출한 신창석 PD와 ‘임꺽정’, ‘여인천하’의 유봉운 작가가 호흡을 맞췄다. 최수종이 분한 김춘추는 삼국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앞에서 사사로운 욕심은 버리고 정적까지 포용하는 인물. 그는 김춘추를 두고 “정치 개혁을 통해 국문을 통일하고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능동적인 외교술로 나라를 이끌어갔다”며 “요즘 말하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고자 갈등과 분열을 하나로 통합한 리더”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인기리에 막을 내린 ‘신사의 품격’

에서 네 남자의 첫사랑 역할로 인상 깊은 모습을 남긴 박주미는 섣덕여왕 역을 연기한다. 이영아는 진평왕의 왕비 승만왕후를 맡아 덕만·김춘추와 대립각을 세울 예정이다. 김유석은 김춘추의 가장 든든한 후원군이자 경쟁자 김유신으로 변신한다. 그는 당초 김유신을 맡기로 한 최재성이 낙마사고로 하차하면서 ‘대왕의 꿈’에 합류하게 됐다. 결국 최창희 감독의 출산의 리어는 김춘추의 두 번째 부인 문명왕후 역으로 연기에 도전한다. 드라마는 오는 8일 밤 9시40분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and 9월 7일(음 7월 21일 辛未). Contains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